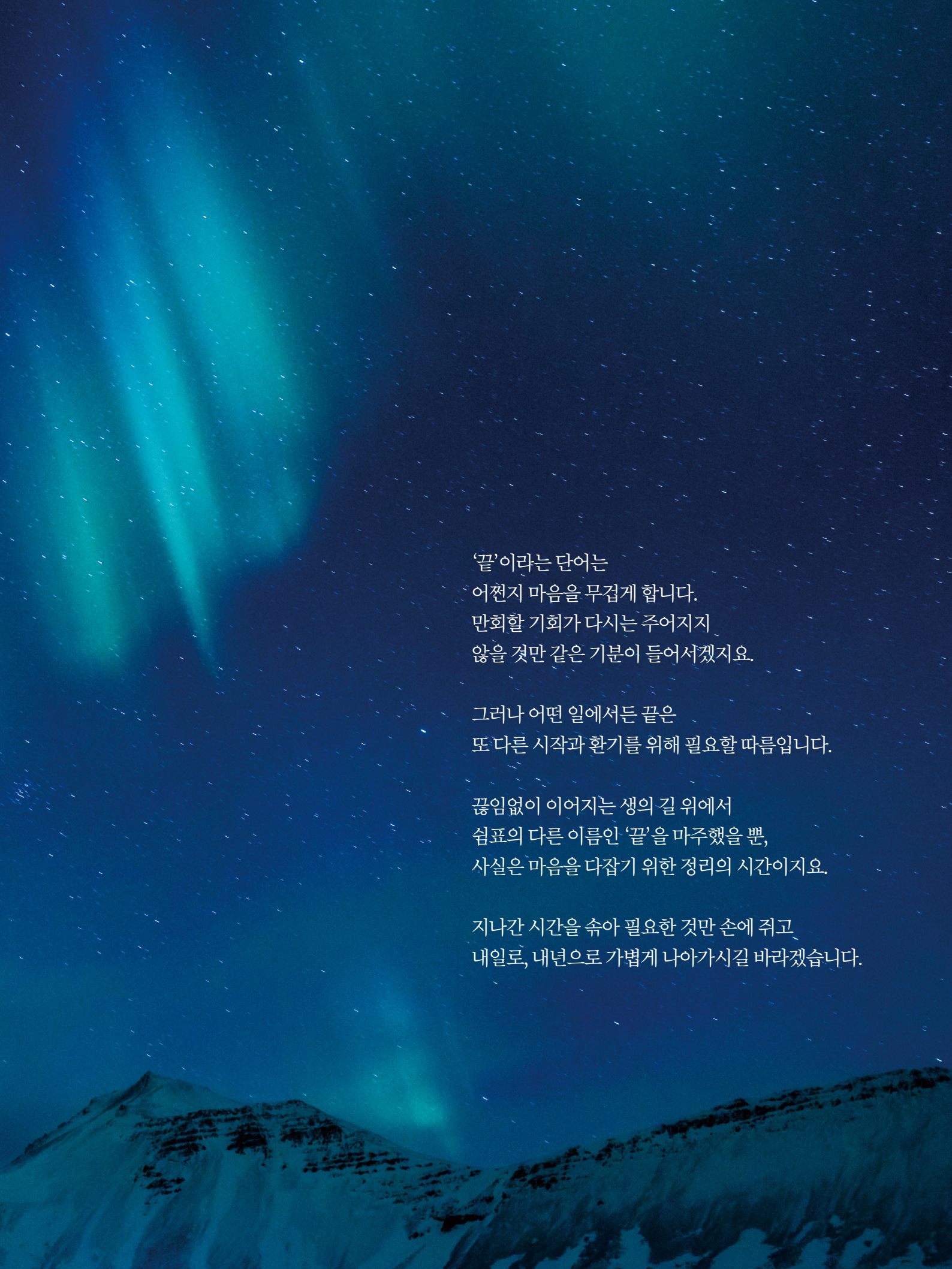
원자력연료

KNF MAGAZINE

2024
VOL.176
NOVEMBER + DECEMBER

End & And



'끝'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만회할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겠지요.

그러나 어떤 일에서든 끝은
또 다른 시작과 환기를 위해 필요할 따름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의 길 위에서
쉼표의 다른 이름인 '끝'을 마주했을 뿐,
사실은 마음을 다잡기 위한 정리의 시간이지요.

지나간 시간을 솎아 필요한 것만 손에 쥐고
내일로, 내년으로 가볍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KNF MAGAZINE

원자력연료

#

2024

VOL.176

NOVEMBER + DECEMBER

END & AND

발행일
2024년 11월 7일

발행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발행인
정창진

편집실
소통협력실 042-869-3444

기획·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원자력연료>는 https://www.knfc.co.kr의 E-Book과 App-Book '사보 원자력연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iOS용

빛나는 KNF

06 **요즘, KNF는**

08 **현장 스케치**
더 맑고, 더 건강한 성장을 꿈꾸다
함께 그린 청렴 Hi:story

10 **클릭! 인사이트**
무수한 어제가 쌓여 만들어지는
한전원자력연료의 내일

14 **안전 알림이**
안전이론: 하인리히의 법칙

18 **KNF 사람들**
신입 직원 4인방,
'연말모임'의 포문을 열다!

살맛나는 KNF

24 **즐거운 쉼표**
땅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다
전라남도 해남

30 **지금은 뉴노멀 시대**
MZ 세대의 365일 돌아보기
'취향 연말 결산 보고서'를
아시나요?

34 **그땐 그랬지**
온정으로 추위를 물리친
'행복 가득' 연말연시

36 **문화의 발견**
흘려보낸 만큼 흘러오는 시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38 **문학의 속삭임**
사랑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에 답이 필요할 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40 **해시태그 이벤트**

42 **독자 마당**

CONTENTS

08

18

24

NEWS

2024
Vol.176

정창진 사장, 현장 안전점검

우리 회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경영 의지 전달을 위해 정창진 사장 주관으로 핵연료 제조 및 부대시설 등 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

정창진 사장은 핵연료 1·2·3동(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TSA 플랜트(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및 NSA 플랜트(논산시 성동면)를 직접 방문 점검하면서, 현장 안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회사 발전의 근본은 안전한 사업장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 구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소통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일터를 함께 일궈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November + December

KNF,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우리 회사는 9월 2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을 획득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부문에서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기관을 1차 서면 심사, 2차 현장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는 신규 및 재인증 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선정됐다.

우리 회사는 신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직무능력 중심 채용,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교육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적자원 관리와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창진 사장은 "앞으로도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 및 육성을 위해 힘쓰며, 직무능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 등 지속적인 인력양성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 맑고, 더 건강한 성장을 꿈꾸다
함께 그린 청렴 Hi:story

지난 9월 11일, KNF 한마음관에서 '함께 그린 청렴 Hi:story 행사'가 열렸다. 대국민 신뢰 구축은 물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청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된, 올해로 세 번째 열린 행사 현장을 지상 중계한다.

글. **이경희** 사진. **박진우**

상호신뢰를 통한 청렴의 가치

청렴한 기업이 가진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고객과 직원, 더 나아가 글로벌 업계에서도 신뢰를 얻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덕분이다. 과거에 대부분 기업의 목표가 오직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너도나도 ESG 경영을 표방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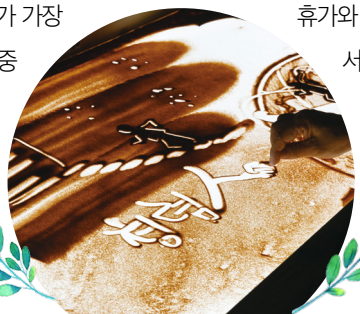
오늘 열린 KNF의 '함께 그린 청렴 Hi:story'도 이러한 청렴 가치 아래 개최됐다. 히스토리(HISTORY)와 하이, 스토리(Hi, Story)의 의미를 담은 오늘 행사는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KNF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행사이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정창진 사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달성한 KNF '청렴도 1위'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축하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인 위험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가 상호신뢰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맺었다.

토크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에 특별 순서로, 샌드아트 공연이 펼쳐졌다. 빈 화면에 모래가 흩뿌려지자 지구가 그려지고 띠 위를 달리는 사람과 청렴인(人) 글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술잔, 술병, 현찰 봉투 등이 등장한다. 이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경계, 건전한 회식문화가 표현되면서 '청렴은 나로부터 시작!' 'KNF 함께 그린 청렴!' 등 청렴을 전달하는 메시지로 마무리됐다. 윤여경 샌드아트 작가의 작품을 감상한 직원들 모두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서로의 마음 들여다보기

이제 토크콘서트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기관장과 직원 간 청렴·소통 간담회' 순서다. 청렴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정창진 사장이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총 세 개의 질문이 주어졌다. Q 일주일 휴가와 현금 1억이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은? Q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큰 행복은? Q 30년 뒤 우리 회사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제도는? 위 질문에 사지선다로 제시된 답변 중 직원들이 리모컨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질문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가족·지인 몰래 나홀로 휴가, 재테크'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 세 번째 질문에서는 '가족친화제도(자율 출퇴근제, 유연 근무제)'였다. 정창진 사장 역시 첫 번째 질문에서는 '가족·지인 몰래 나홀로 휴가, 재테크', 두 번째 질문에서는 '업무로 인한 성과(성취) 달성' 세 번째 질문에서는 '출산육아 지원'을 선택, 자신이 고른 답변에 대해 설명하며 직원들의 생각을 미리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행사 전에 미리 직원들이 써서 붙인, '처·실·부서 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이라는 질문이 걸린 보드에 붙은 포스트잇을 보고 정창진 사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스트잇에는 긴 회의 시간에 대한 불합리함, 장시간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불편함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고 정창진 사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훑어보면서 신중히 답변했다. 긴 회의, 불필요한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는 정말 필요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최소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서류 양식이 많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사용이 가능하다. 물리적 페이퍼 생산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정창진 사장은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의미 있었다"라며 "앞으로 좀 더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소통하겠다"라고 다짐해 직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유쾌한 이벤트로 청렴의 가치를 만나다

한마음관 야외와 대강당에 마련된 프로그램도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청렴 올림픽존과 청렴 퀴즈존, 찾아가는 청렴 상담소와 커피와 츄러스를 나눠주는 푸드트럭 등 다양한 이벤트와 이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든 직원들로 마치 작은 축제처럼 보였다. 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주고 이것으로 푸짐한 선물까지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은 더욱 즐거워했다.

회사 사장과 직원 간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청렴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한 오늘 하루. 게임마다 새겨진 '청렴'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 깊이 각인한 KNF 직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되리라 확신을 가져본다.

무수한 어제가 쌓여 만들어지는 한전원자력연료의 내일

다가오는 12월 27일은 원자력의 날이다. 원자력의 안전을 재고하고 원자력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실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시간 위에 오늘을 얹어 우리는 내일로 향할 것이다. 오늘의 밑받침이자 내일의 발돋움이 되어준 시간을 톺아본다.

김선창 초대 사장

2~4대 한필순 사장

원자력연료의 태동과 국산화를 위한 노력

1957.

1971.03.19.

고리 1호기 기공식

1957. • 한국 IAEA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

1962. •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 II 준공(100kW)

1978. •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 개시 및 준공, 세계 21번째 원자력발전소 보유국**

1982. •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설립 제1대 사장 김선창 선임**

1983. • **제2대 사장 한필순 선임**

1985. •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지정(과학기술처)

1988. • **국산 원자력연료 제1호 제작 완료**

1989.07.25.
국산 경수로 원자력연료 첫 출하식

1986.09.01.
원자력연료 성형가공공장 착공식

1989. • 경수로용 원자력연료 상업생산 개시(연 200톤-U)
'원자력 안전의날' 제정, 첫 시행

1990. • 고리원자력 2호기에 국산 원자력연료 최초 장전

1994. • **교체노심 원자력연료 독자 설계 시작**

1996.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연료 설계 업무 인수

1997. • ISO9001 인증 획득(미국 UL)

1999.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01. • ISO14001 인증 획득(한국품질재단 품질인증센터)
국가공인교정기관 인정서 취득(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2. •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 획득(한국산업인증공단)
제1회 원자력안전마크 획득(과학기술부)

2002.

1987.03.26.
원자력연료 성형가공공장 골조공사 현장

2001.06.13.
한국표준형원전용 개량연료 시험집합체 출하 기념식

2006. • 한국표준형 원전용 개량연료(PLUS7) 첫 상용 공급
브라질에 원자력연료 핵심부품(지지격자체) 15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2007. • **원자력연료 크러드(물때) 제거기술 세계 2번째 개발**

2008. • 웨스팅하우스 원전용 개량연료 ACE7 첫 상용 공급
세라믹 시설 증축공사 준공(연 550톤-U)

2009. • 지르코늄합금 튜브 제조공장 준공(연 1,400km)
제어봉 집합체(CEA)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KWN 설립
경수용 원자력연료 금속 피복관 핵심기술
'신기술 인증' 마크 획득(지식경제부)

세계적인
원자력기업을 향한 발돋움

2006.

2008.04.07.
개량연료 ACE7 첫 출하식

2008.06.16.
지르코늄 합금 피복관 특성시험 시제품 제작 완료

2009.12.27.
UAE 원전 사업 협정 서명식

2010. • **중수로 사용후연료 건전성 검사장비 및 기술 세계 최초 개발**

2011. • **지르코늄 합금 피복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첫 수출**

2012. • KWN 상업생산 제어봉 집합체 첫 출하

2013. • KOLAS 국가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고유 핵연료·노심설계코드 원천기술 확보

2015. • 핵연료 제3공장 기공식

2016. • 수출형 원전 운전시스템 OASIS 개발
NSA 플랜트 공장 준공
우라늄 정제공정 기술 개발

2016.12.02.
NSA플랜트 준공식

2024.07.18.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4.

2017. • **UAE 원자력연료 첫 출하**

2019. • **한국형 신형 원전 APR1400 미국서 설계인증 취득**
원자력연료 안전운송 1,000회 달성
NSA 플랜트, 공정안전관리 S등급 획득(고용노동부)

2020. • 핵연료집합체 특성 시험시설 구축
TSA 플랜트, 공정안전관리 S등급 획득(고용노동부)

2021. • 방사능오염 폐기물 제염기술 개발 관련 특허 취득

2022. • 국내기술 개발로 국제요건 갖춘 경수로연료 운반용기 인허가 획득

2023. • **2억 불 수출탑 수상**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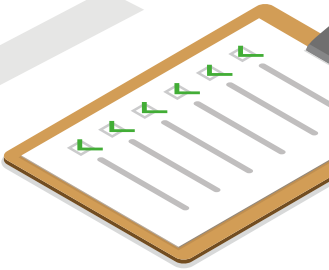
2024. •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Team Korea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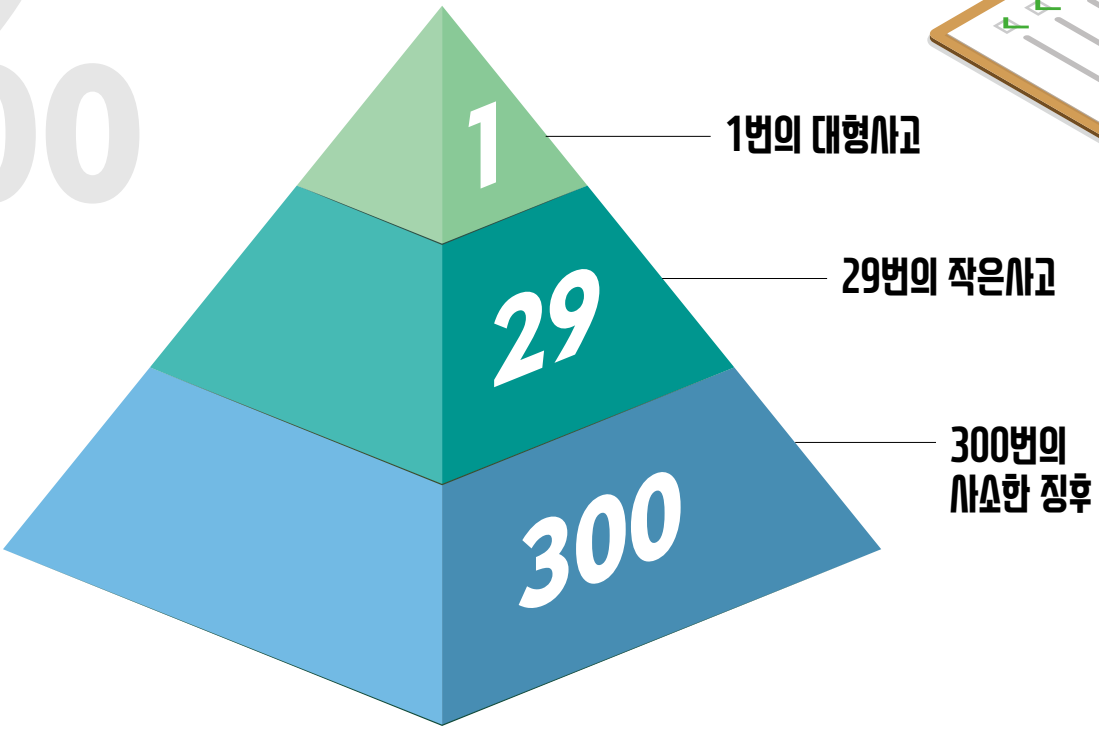
2023.12.05.
2억 불 수출탑 수상

안전이론: 하인리히의 법칙
Heinrich's law

1
29
300

<하인리히의 법칙 1:29:300>





'하인리히의 법칙'은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재해에 대해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장한 것으로, '사고나 재난은 발생 전에 여러 차례의 징후가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는 징후에 관한 법칙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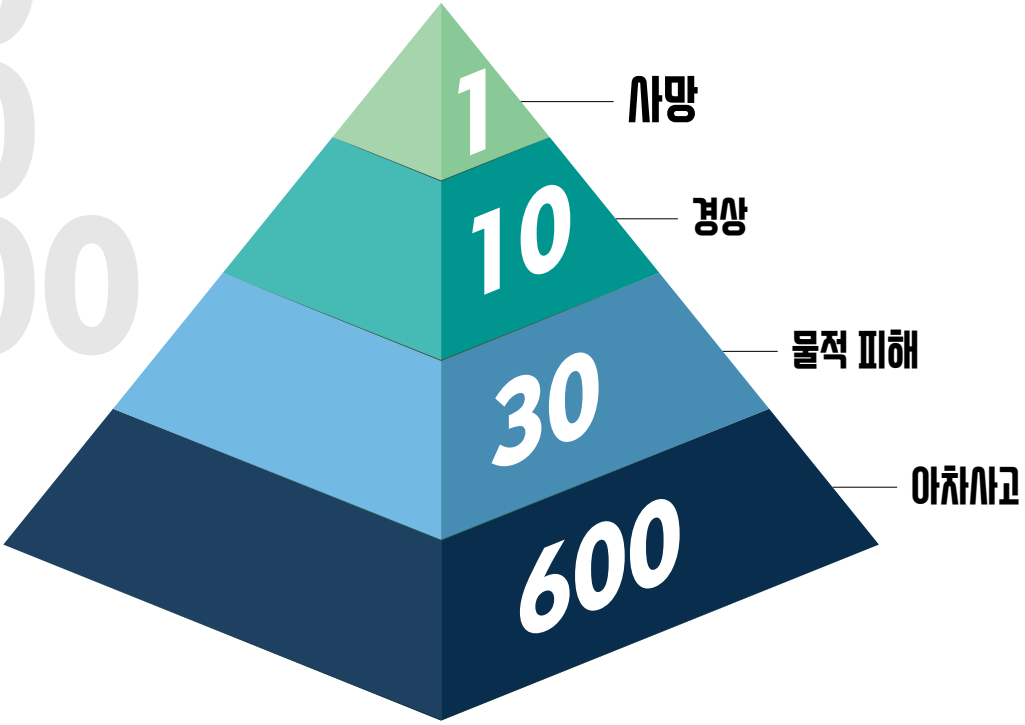
큰 사고가 발생하는 원리를 통계적으로 밝힌 이론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관리감독자였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그의 저서 『산업재해 예방(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 Scientific Approach)』에서 소개한 '안전이론: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은 오늘날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칙이다. 그는 수천 건의 보험 고객 상담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한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번 경고성 징후를 보낸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1:29:300의 법칙으로 정립했다.

이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볼 때 심각한 안전사고가 1건 일어나려면 그 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가 29건,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이 300건 정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은 1:29:300이라는 것이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수 자체가 아닌 산업재해와 그 징후의 비율이다. 이는 대부분의 참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을 파악, 수정하지 못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인리히의 법칙과
버드의 법칙,
애덤스의 법칙까지
세 가지 법칙을 묶어
'사고의 삼각형(accident triangle)'
또는 '재해 연속성 이론'

<버드&로프터스의 법칙>



사소한 일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1969년에는 산업의 기계화, 시스템화에 따라 프랭크 버드와 로버트 로프터스가 하인리히 법칙을 새롭게 해석했고, 1976년 이를 정리하여 발간한 <Loss Control Management>라는 논문을 통해 '버드&로프터스의 법칙(또는 버드의 빙산)' 만들어 냈다.

버드의 법칙에서는 사고가 날 '뻔'한 '아차사고'까지 통계의 범위에 삽입해 1(사망):10(경상):30(물적 피해):600(아차사고)의 비율로 나타낸다. 하인리히의 법칙과 버드의 법칙은 산업안전기사 문제로 반드시 출제되며, 애덤스의 법칙까지 세 가지 법칙을 묶어 '사고의 삼각형(accident triangle)' 또는 '재해 연속성 이론'이라고도 한다.

'재해 연속성 이론'은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다시 말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 또는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즉, 사소한 일에도 경각심을 가지며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속담 중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에 비유해 말하자면, 소의 일부만 잃었을 때는 외양간을 고치면 그나마 남은 소들이라도 지킬 수 있지만, 소들을 다 잃어버린 뒤에는 어떤 짓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이에 하인리히의 법칙은 최근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적용 분야가 확대돼 각종 사고나 재난, 또는 사회적·경제적·개인적 위기 및 실패 등 사회·경제 전반적인 현상을 분석·설명하는 데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0년 개봉된 영화 <데스티네이션>을 통해 일반인들에까지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신입 직원 4인방, '연말모임'의 포문을 열다!

연말로 치달을수록 뚝뚝 떨어지는 기온은 달갑지 않지만,
딱 하나 기다려지는 것이 있다. 바로 삼삼오오 모여 안부를 나누는
연말모임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며 우리는 만남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체감한 바 있다. 오늘 참여를 신청한 네 사람에게
연말모임은 더욱 특별하다. 입사 후 처음 맞는 연말모임이자,
동기들과 보내는 첫 연말모임이기 때문이다.

글. **박예나** 사진. **이성원**

‘기대 만발’ 동기들과 함께하는 첫 연말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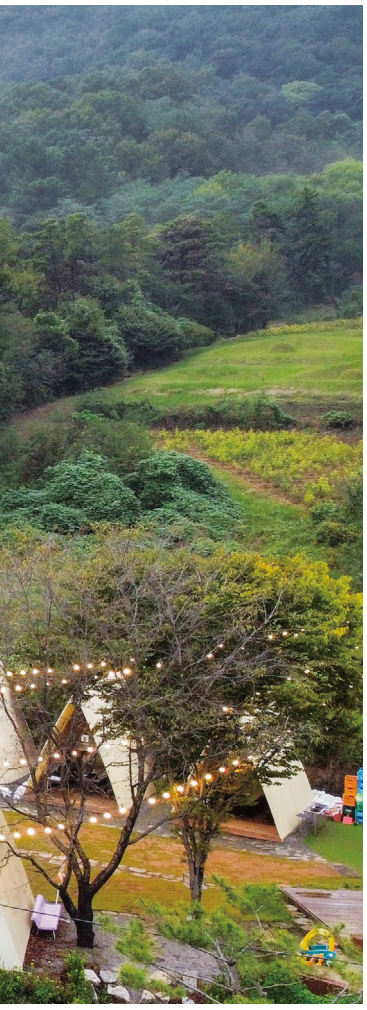
가을이 무르익고 있었다. 노을이 머물 틈을 주지 않을 만큼 금세 사위(四圍)가 어두워지는 데서, 엽록소를 잃어가는 나뭇잎이 하나둘 붉게 물드는 데서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반면 오늘 만난 네 사람은 시간을 거꾸로 달리는 듯이 파릇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4월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다. 동기들 가운데서도 활발한 성정이 비슷하다는 네 사람은 사진 촬영에 주저함이 없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한 MZ 세대의 특성인가도 생각해봤으나, 세 사람이 이직으로 한전원자력연료(이하 KNF)에 입성했다는 이야기에서 갈고닦아 온 사회성이 발휘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사회성과 활달한 성격을 겸비했다고 하지만 반년 남짓의 짧은 시간을 함께한 것치곤 네 사람은 무척 가까워 보였다. 이에 이유정 직원은 “입사하면 한 달가량 합숙하고 함께 교육도 받다 보니 금방 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회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 고민 등을 나누면서 마치 대학 친구들처럼 가까워졌다.”라고 라원빈 직원도 말을 보탠다. 이에 최근의 주요 대화 주제는 무엇이냐고 묻자, 고민하듯 서로 쳐다보던 네 사람은 “부동산”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다소 현실적이긴 해도 친근한 사이라야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제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다. “재밌고 유익한 말만 해주는 친구들”이라는 강준하 직원의 다른 세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일견 이해됐다.

그간 취업 및 이직을 준비하느라 연말연초를 즐길 수 없었다는 네 사람은 오늘 이들의 ‘작은 연말모임’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 모처럼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또 ○○○(가게 이름)’이라는 말이 오갈 정도로 고만고만하던 모임 장소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모인다는 점에서도 자못 설렌다고 했다. 특히 바베큐장이라는 장소 특성상 여행 온 느낌이 날 것 같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래서일까. 이들은 매점에 들어서자마자 포지션을 대략적으로 나누어 의욕적으로 반찬과 재료를 담기 시작했다.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KNF에서의 첫 연말

평소에도 친구들과 모이면 고기 굽기를 자처한다는 강준하 직원과 앞치마까지 단단히 챙겨입은 최경하 직원은 고기 선택을 도맡았다. 두툼한 고기는 물론 꼬치와 소시지까지 야무지게 담았다. 이유정, 라원빈 직원은 바베큐에 곁들일 쌈채소와 구이용 버섯, 밑반찬, 소스 등을 챙겼다.



“입사 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남은 시간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팀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와 숯불이 담긴 그릴 위에 고기를 비롯한 각종 재료를 얹는다. 불이 금세 활활 타올라 겉바속촉하게 고기를 익힌다. 굽기 실력에 대한 동기들의 믿음이 두터운 듯 강 직원을 향해 “어때? 고기 다 익은 거 같아?”라는 질문이 연신 날아든다. 무심해 보이지만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에서 흡사 전문가 포스가 느껴졌다. 이렇게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에는 누구나 마음을 다하듯, 강 직원이 대학원을 거쳐 KNF에 오기까지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도 ‘간절한 마음’ 덕택이었다고.

“간절하게 원하던 회사에 취업해 올해는 매우 뿌듯하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실로 네 사람 모두에게 올해는 특별하게 기억될 터. KNF에서 보낸 첫해를 떠나보내는 마음은 또 어떨지 궁금했다. 이에 최경하 직원이 먼저 성숙한 답변을 내놓았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 올해를 잘 꿰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요. 잘 꿰어졌는지는 내년을 지내보며 돌아보려 합니다. 혹여나 잘못 꿰맸다면 너무 늦기 전에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는 입사하기 위한 노력, 입사 후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불안했지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안정적으로 저와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불안했다’라는 고백이 표면적으로는 나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감정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태도는 되려 이유정 직원을 의연해 보이게 했다. 라원빈 직원은 그간 숨 가쁘게 달려온 기색이 역력한 한편, 씩씩하게 내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입사 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남은 시간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팀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nformation

바비큐팩토리 유성점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895-25

이용료: 텐트(룸) 및 바비큐시설 이용 1인 5,000원(간단한 채소 및 반찬 포함), 그 외 고기, 밥, 음료, 라면 등 현장 구매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 두런두런 한 해를 털어내며

네 사람은 넘치는 에너지만큼이나 먹성도 좋았다. 또 한 번 매점을 털어(?) 2차전에 돌입한 것. 때로 한가득 피어오르는 연기에도 불편한 줄 모르고, 아옹다옹 장난스럽게 서로 먹여주는 모습이 정겨웠다. 고기 두 판을 더 구워 배 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나자,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마시멜로우를 구우며 한 해의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

라원빈 직원과 최경하 직원은 덕진 터널을 지나오던 첫날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생각보다 더 깊은 산 속으로 진입한다는 인상을 받았고, 터널을 통과한 후 펼쳐지는 너른 풍경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라는 라 직원 말에 "그렇다, 마치 비밀스러운 공간에 온 듯했다."라고 최 직원이 맞장구쳤다. 의도적으로 건설된 양식은 아니지만, 신입 직원이나 방문객들에게는 삼엄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덕분에 이들과 같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이들에게는 인생의 또 다른 챕터가 열리는 상황이 더욱 선명하게 그려졌을 성싶었다.

이유정 직원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신입 교육이 구성돼 있어 안정적인 회사라 느꼈다."라고 회사에 대한 첫인상을 회고했다. 동기들과 끈끈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자 더 빠르게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운 신입 교육 시절이 그 어느 때보다 인상 깊었던 모양이다. 최 직원은 일련의 시간을 지나오며 느낀 뜻밖의 소회를 털어놓았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한해 한해 지나가면서 건강이 긴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이든, 이러한 모임이든 건강해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연말모임의 대미를 장식하듯 모두의 건강을 염원하는 훈훈한 덕담과 함께 하루는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비록 오늘의 연말모임은 다소 이르고, 소소한 인원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 더욱 다양한 연말모임이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을 터.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알찬 열매를 수확하길 바란다.

mini interview

동기들과 함께한 이른 '연말모임' 어떠셨어요?

사고해석부 **강준하 직원**

오랜만에 동기들과 모여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남은 2024년도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고, 동기들과 항상 이렇게 재밌게 지내길 바랍니다.

연료공정개발부 **라원빈 직원**

같이 촬영도 하고 바베큐도 하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동기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고, 다음 연말모임도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총무부 **이유정 직원**

동기들과 하는 첫 연말모임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척척 손발이 맞게 바베큐를 준비하고 수다와 웃음이 넘쳐난 이번 모임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성능해석기술부 **최경하 직원**

촬영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어 흥미로웠고, 말 많은 동기들과 함께하다 보니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차후 기회가 생긴다면 사보 내 다른 활동도 참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땅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다 전라남도 해남

인생은 끊임없는 시작과 끝의 연속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끝을 맞이한다. 끝은 긍정보다 부정적일 때가 많다. 끝이라는 단어가 무겁고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다. 익숙한 환경, 사람, 상황과 끝맺음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반도의 땅끝, 전라남도 해남의 위치가 그렇다. 육지에서 바라보면 땅끝이지만, 땅끝에서 육지를 바라보면 그곳이 시작점이다. 땅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한다.

글·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땅끝에 조성된 땅끝탑과
뱃머리 모양의 전망대

땅끝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달리고 싶을 때 달리는 드라이브 여행

학창 시절 '사회과 부도'라는 책이 있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 역사, 지리, 세계사를 공부하려면 사회과 부도가 꽤 유용했다. 사회과 부도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있었다. 우리나라 전도다. 펼치면 A3 용지보다 큰 지도였다. 그 지도를 보며 전국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듯한 재미를 느꼈다. 그러다 발견한 곳이 우리나라의 땅끝에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이었다. 해남은 강진, 영암, 목포와 맞닿아 있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완도, 진도, 신안과 인접해 있다. 해남군에서 한반도의 땅끝에 해당하는 곳은 해남군 송지면이다.

해남은 서울서 꽤 먼 곳이다. 서울 기점 대중교통편은 용산역에서 광주까지 KTX로 이동한 뒤 시외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소요 시간은 4시간 정도다. 손수 운전하면 400km가 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도 5시간 정도 걸린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땅끝의 의미가 더 크고 강하게 다가온다.

땅끝 드라이브에서 마주하는 풍경들

드라이브는 단순히 목적지로 향하는 이동 수단 그 이상이다. 우리에게 잠시나마 삶의 짐을 내려놓고, 도로 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과 해방감을 선사한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드라이브는 제격이다. 특히 낯선 길에서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주하는 긴장과 설렘은 여행의 재미를 한층 고조시킨다.

해남 땅끝 드라이브 때 이용하는 도로는 77번 국도이다. 총 길이가 약 1,240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국도다. 부산에서 출발해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경기도 파주까지 이른다. 동해안에 7번 국도가 있다면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77번 국도가 있다. 이 가운데 땅끝 드라이브 구간은 해남군 송지면을 누비는 땅끝해안로이다.

땅끝 드라이브는 땅끝조각공원에서 출발한다. 윤도산(284m) 자락에 위치한 조각공원에는 조각품 26점이 전시돼 있다. 중앙 계단을 따라 오르거나 오른쪽 경사면을 따라 올라도 좋다. 경사면에는 넝쿨 터널이 꾸며져 있다. 여름철 한낮의 뜨거운 태양도 거뜬히 막아낼 만큼 넝쿨이 촘촘하다. 아래쪽에는 해남의 자연과 풍습 등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이, 위쪽으로 갈수록 인체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다. 작품을 감상하며 한 계단씩 오르다가 뒤를 돌아본다. 아득한 바다가 넓디넓게 펼쳐진다. 12시 방향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땅끝전망대가 우뚝하다. 바다에는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양식장의 부표가 촘촘히 빛난다. 한가롭게 바다에 떠있는 작은 어선들 뒤로 부드러운 곡선을 자랑하는 산들이 낮잠에 빠진 듯 평화롭다.

77번 국도는 서쪽으로 내달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구미해변에 닿는다. '사구미'는 이곳에서 사금이 많이 채취된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모래언덕의 끝'이라는 뜻의 사구미(沙丘尾)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어느 것이 정설인지 알 길은 없지만, 해변에 내려서는 순간 모래가 무척 곱다는 것을 실감한다. 밀가루 입자를 만지는 듯하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백사장이 1.5km 정도 이어진다.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어린 자녀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으로 보인다. 특히 해변 뒤편에 바람을 막아줄 곰솔 숲이 있어 텐트를 치고 한나절 쉬어가기에 그만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땅끝에서

77번 국도가 사구미해변을 지나자 마을 안길로 접어든다. 차창밖에는 야트막한 시골집이 바람처럼 흐르고 그 주변에는 황토에 뒤덮인 밭이 맞붙어 흐른다. 해남은 사계절 볕이 잘 들고 기온이 따뜻해 이모작이 가능하다. 밭에는 겨울 배추와 고구마, 참다래가 황토의 영양분을 섭취하며 한껏 맛을 더해가고 있다.

땅끝마을로 가는 길에 '전망 좋은 곳'이라 적힌 이정표가 여럿 있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갓길에 주차하고 풍경을 마주한다. 수평선 위에 무심히 던져놓은 듯한 섬들이 듬성듬성 흩어져 있다. 고깃배들은 엔진도 켜지 않은 채 세월을 낚는 듯 여유롭다.

드디어, 땅끝마을에 이른다. 모노레일을 타고 땅끝전망대로 향한다. 모노레일 하차장인 사자봉 정상에는 등불 모양의 전망대가 있다. 전망대 모양이 등불인 이유는 사자봉 정상에 원래 갈두산 봉수대(烽燧臺)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망대 옆에 봉수대를 꾸며놓은 것도 그 이유에서다. 전망대에서 보는 풍광은 한마디로 탄성을 자아낸다. 여객선이 갈두여객터미널을 오가고 진도, 완도를 비롯해 크고 작은 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수평선에 걸린 섬들은 마치 바다를 수놓는 흑진주처럼 아름답다. 맑은 날에는 제주도 한라산까지 볼 수 있다.

땅끝전망대에서 땅끝까지 나무데크가 놓여있다. 바다와 맞닿은 땅끝으로

끝에서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땅끝이 전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땅끝전망대 아래에 자리한 전망대

땅끝마을의 조형물

땅끝에 조성된 땅끝탑과 뱃머리 모양의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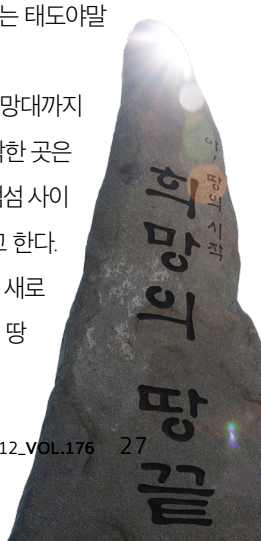
땅끝마을을 배경으로 모노레일이 이동 중이다.

향할수록 바람이 강하고, 파도 소리는 거칠다. 비로소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이다. 뱃머리 모양의 전망대에 올라 두 팔을 벌려 바다를 껴안는다. 한없이 넓은 바다와 세상이 작은 품에 왈칵 와서 안긴다. 땅끝을 가슴에 받아들이는 순간, 끝이라고 단정해 놓은 그 너머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이라는 단어에 용기가 솟구친다.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은 인생의 역설이자 진리다. 우리는 계속해서 끝을 맞이하고, 그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을 발견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끝에서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땅끝이 전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갈두여객터미널에서 울어대는 뱃고동 소리가 땅끝전망대까지 울려 퍼진다. 그 소리를 따라 여객터미널로 향한다. 도착한 곳은 선착장에 있는 맴섬 앞. 두 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맴섬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데 그 풍경이 해남 최고의 일출이라고 한다. 흔히 끝이라면 해넘이를 떠올리겠지만, 해남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출이 더 아름답다고 한다. 이 또한 땅끝 해남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땅끝마을의 조형물



노송의 품격과 이국적인 바다의 조화

77번 국도는 땅끝마을을 지나서도 이어진다. 다음 구간은 땅끝 오토캠핑장과 연결된 송호해변이다. 해남의 대표적인 해변인 이곳에는 수백 년 된 노송(늙은 소나무)이 해변을 따라 1km가량 이어진다. '해변에 노송이 무성하고, 맑고 잔잔한 바다의 물결이 마치 호수 같다'라고 하여 송호해변이라 부른다.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여름철엔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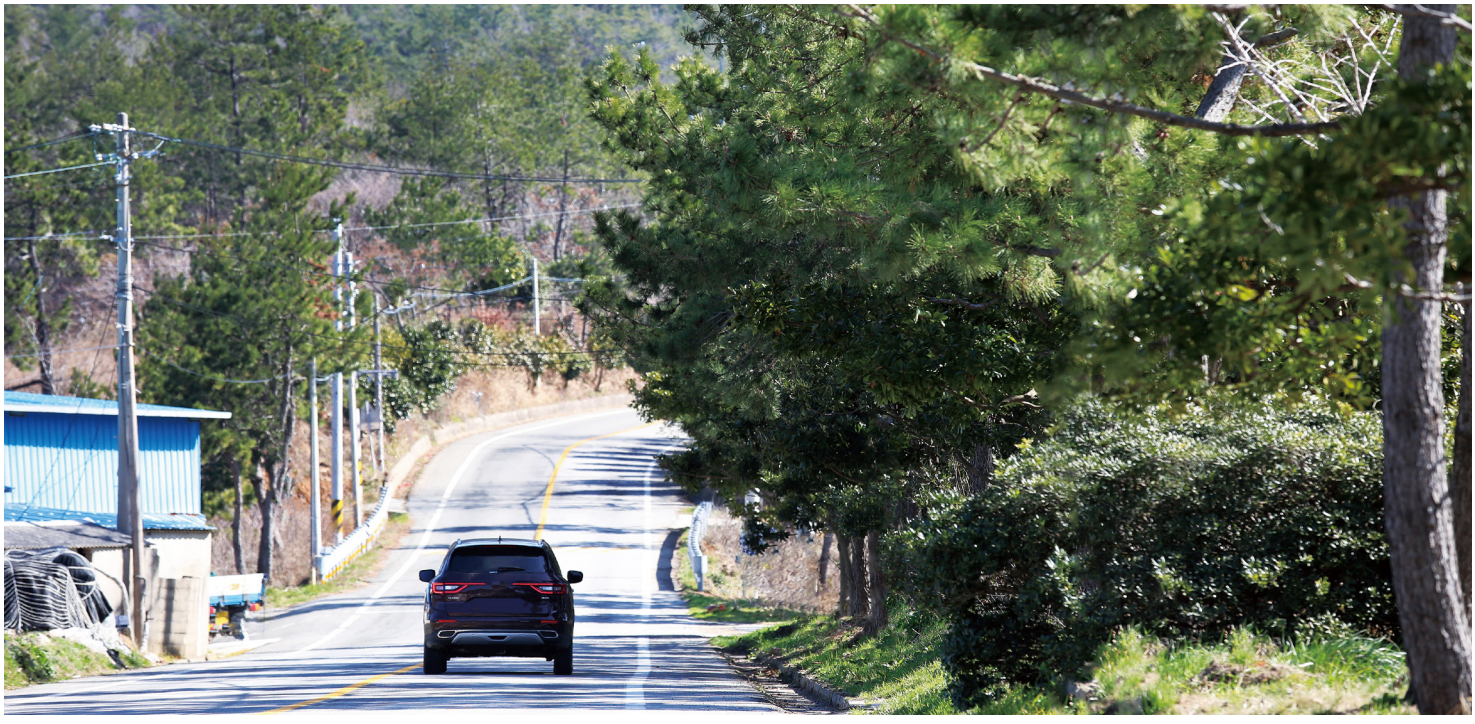
철 지난 바다는 여름에 느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 여름에 수많은 인파로 활기가 넘쳤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땐 차가운 바람과 거친 파도 소리에 쓸쓸할 뿐이다. 그래서 찬바람 가득한 인적없는 바다로 떠나온 이번 여행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각과 생각을 열어주는 특별한 시간이다.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해변은 한적하고, 파도는 천천히 해안에 닿아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리듬을 타듯 출렁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쉼을 제공한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 아니다. 일상에서 누리지 못한 차분함과 여유로움이다.

땅끝조각공원에는 해남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 많다.

중리 바닷길이라 불리는 대죽리 앞바다는 사진 찍기 좋은 명소다.

우리나라 최장 국도인 77번 국도, 땅끝에 이르면 한적해진다



맴섬의 일출

77번 국도 땅끝 드라이브는 대죽리 앞바다에서 마무리된다. 중리 신비의 바닷길이라 불리는 이곳은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하루에 12시간 간격으로 바닷길이 두 번 열린다.

송호해변 인근에 있는 땅끝 오토캠핑장은 송호해변의 일몰과 땅끝전망대의 일출을 동시에 맞을 수 있다. 특히 송호해변으로 저무는 일몰은 노송 사이로 저물어서 더욱더 서정적이다. 게다가 자리를 옮길 필요 없이 캠핑장에서 감상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캠핑장의 위치가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있는 덕분이다.

8분간의 잊을 수 없는 풍광, 두륜산 케이블카

"두륜산 고계봉(638m)에 올라가면 한라산이 보인다!"라는 말에 솔깃해서 두륜산 케이블카에 올랐다. 두꺼운 먹구름이 강한 바람의 장단에 맞추듯 하늘을 날아다닌다. "구름이 많은데 한라산을 볼 수 있을까?"하는 의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케이블카가 구름을 뚫고 8분간의 비행에 나선다. 곡예 하듯 외줄에 의지해 1.6km를 올라간다. 넓은 창밖으로 시원한 경치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산등성이가 어깨를 맞대고 첩첩이 이어진 모습이 장관이다.

상부 역사에 내리자마자 산책로로 향한다. 희귀종인 '백소사나무' 군락을 벗 삼아 10분 정도 산책로를 오르자 전망대에 이른다. 전망대에는 면도칼 같은 날카로운 바람이 모질게 불어댄다. 옷 속으로 파고드는 바람을 애써 막으며 풍경을 마주한다. 옅은 안개 때문에 제주도의 한라산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실망하기엔 이르다. 영암의 국립공원 월출산과 강진 주작산이 아득하고, 강진만, 완도, 진도 등 다도해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두륜산 정상은 바람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겨울에 부는 바람은 나뭇가지에 달라붙어 있는 수증기를 순식간에 얼음 결정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를 '상고대'라 한다. 상고대가 활짝 피면 두륜산 정상은 새하얀 겨울 왕국으로 변신한다. KNF

'해변에 노송이 무성하고, 맑고 잔잔한 바다의 물결이 마치 호수 같다'라고 하여 송호해변

송해해변 솔숲에는 100~200년 된 노송이 가득하다.

travel information

땅끝 드라이브 코스

땅끝조각공원~사구미해변~땅끝마을~땅끝 모노레일~
땅끝전망대(땅끝섬, 맴섬)~송호해변~중리 신비의 바닷길(대죽리 앞바다)

해남 관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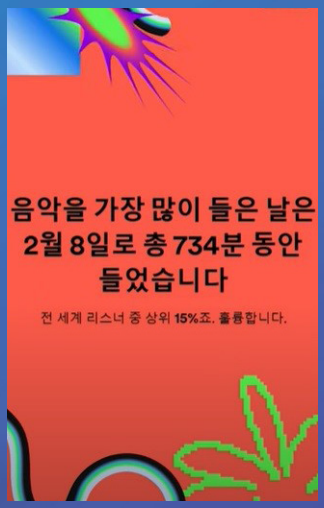
061-532-1330

MZ 세대의 365일 돌아보기 '취향 연말 결산 보고서'를 아시나요?

한 해의 끝자락이 다가오면, MZ 세대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웹에서 활동한 발자취를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 나만의 취향과 니즈, 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자신의 데이터를 SNS에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즐기기도 한다. 흩어졌던 데이터를 모으고 잇는 '취향 연말 결산'을 통해서 말이다.

글. 김주희

멜론 마이레코드



스포티파이 랩드

배달의민족 먹어보고서

'나'를 담은 필연적 데이터

우리는 평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일상은 충실히 기록되고 있다. 무슨 영화와 책을 봤는지, 어떤 음악을 스트리밍했는지, 무엇을 샀는지, 어디에 갔는지 등이 데이터로 남는 것이다. 개개인의 취향이나 필요, 건강 상태, 생활 양식 등 사소한 행동에서 비롯된 스몰데이터다. 이러한 수치는 '나'를 온전히 담은 필연적 정보이기도 하다. 매일의 일상이 매주, 매달을 이루고 마침내 한 해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여러 플랫폼과 앱은 그동안의 온라인 발자취들을 모아 '연말 결산'이라는 리포트를 제안한다.

유저 개개인의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취합해 보여주는 개인 맞춤형 연말 결산 서비스의 시초는 스포티파이의 '랩드(Wrapped)'로 통한다. 지난 2015년 음원 스트리밍 업계 최초로 선보인 랩드는 한 해 동안 음악 감상 시간, 최다 감상한 노래, 나의 TOP 아티스트 리스트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유튜브뮤직의 '리캡', 멜론의 '마이레코드', 바이브의 '리와인드'도 1년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악적 취향을 결산해 준다.

독서부터 쇼핑, 웹툰, 음식까지… 개인 맞춤형 분석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스몰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과 앱, 웹도 동참하는 흐름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은 개인별 거래 내역과 후기 등을 정리해 인포그래픽 영상으로 선보였고, 도서 구매 사이트 '예스24'는 '읽어보고서'라는 서비스로 개인별 독서 활동을 정리해 보여주기도 했다. 배달의 민족은 매년 연말이 되면 개인 주문 이력을 분석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배민 먹어보고서'를 제공한다. 주문 건수와 금액, 자주 주문한 지역과 상호명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연말 결산 페이지를 통해 블로그, 웹툰, 쇼핑, 뉴스, 플레이스까지 네이버에서 사용한 서비스의 개인 데이터를 집계한 수치를 제공한다. 블로그 사용자들이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한 '마이 블로그 리포트'는 글을 많이 작성한 시간, 작성한 글의 수, 탐색 등 활용 요약을 비롯해 가장 많은 공감을 보낸 이웃, 인기 글, 유입 키워드 등 블로그 운영에 유용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시리즈는 개개인 열람 이력을 분석한 '나의 웹툰 리포트'와 '나의 시리즈 리포트'를 제공한다. 열람 작품과 열람 횟수, 감상한 주요 장르 등이 담겼다. 또한 한 해 동안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면서 얼마의 포인트를 받았고, 어디에 썼으며, 나의 쇼핑 루틴이 어떻게 흐르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단순 숫자 넘어 나를 알아가는 시간

연말 결산 보고서의 이용자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개인화된 연말 결산 캠페인에 대해 "분석 결과가 생각보다 구체적인 점이 흥미롭다", "숫자 나열에 그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웹툰에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이벤트처럼 다가온다", "솔직한 데이터를 통해 나의 덕후력을 인증하는 것 같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연말 결산을 통해 평소 앱을 사용하면서도 의식하지는 못했던 소비 형태, 무심코 사용했던 서비스들을 확인하며 새해 플랜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네이버 나의 웹툰 리포트

나만의 취향일지, 새로운 콘텐츠가 되다

SNS에선 자신의 취향 연말 결산을 공유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SNS 계정에 올리거나 지인과 공유하는 등 해당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 취향 연말 결산 보고서가 나만의 일상과 개성을 공유하는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올해 내가 읽은 책', '올해 나의 취향저격템', '올해 가장 잘 산 소비', '올해 가장 자주 간 와인바'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며 구독자들과 댓글로 소통하는 유튜버도 볼 수 있다. 기록과 추억에 의미를 두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취향 연말 결산은 하나의 '놀이'가 되기도 한다. 지인들과 모여 셀프 질문지를 공유한다. 스스로 질문지를 만들고 곰곰이 답을 떠올리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올해의 장소는?'과 '올해의 소비는?'이라는 질문에 '여름휴가로 다녀온 동남아', '베개 유목민이 찾은 메모리폼 베개' 등 행보와 추억을 소환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식이다.

유튜버 한주의 책이야기

연말 결산을 통해 평소 앱을 사용하면서도 의식하지는 못했던 소비 형태, 무심코 사용했던 서비스들을 확인하며 새해 플랜을 수립하기도 한다.

네이버 마이블로그 리포트

초개인화 시대, 마케팅도 스몰데이터 중심

이처럼 개인화된 데이터는 기업에게도 유의미한 정보로 통용되는 추세다. 지금까지의 마케팅 전략은 대중적인 트렌드를 짚어주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한 해 가장 많이 사랑받은 노래, 한 해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 등 대중의 관심을 읽는 데이터에 집중했던 터라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스몰데이터는 소비자별 행동 양식, 취미, 취향 등과 같이 주관적인 성향이 짙기 때문에 더 정밀하고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요즘은 취향이 다양화·세분화되는 시대이므로 기업들은 초개인화 마케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스몰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별 니즈와 원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고객 특성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들은 유저 친화적인 취향 연말 결산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와 유대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향후 니즈까지 예측하는 등 마케팅 전략 방향을 재정립할 전망이다.

온정으로 추위를 물리친 '행복 가득' 연말연시

엔데믹 이후 연말연시에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이 늘었다지만, 50여 년 전의 북적거림에 비하면 소박한 수준이다. 당시에는 온 국민이 쏟아져 나왔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주요 상권에 인파가 가득 들어찼고, 안부를 전하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으로 우체통이 미어터졌다. 따뜻한 사람 냄새로 동장군을 이겨냈던 그 시절의 연말연시 풍경을 살펴보자.

글. **강진우 문화칼럼니스트**
사진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

1971년 명동 미도파백화점 크리스마스 시즌 풍경

인산인해 속에 울려 퍼진 캐럴

지금이야 '연말연시 특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12월과 이듬해 1월이 별일 없이 지나가지만, 1970~1980년대의 연말연시는 대목이었다. 명동, 금남로, 동성로 등 전국 주요 상권에는 '송년 대잔치', 'X-마스 연말연시 대특매' 등의 간판을 내건 상점과 백화점이 즐비했으며, 선물용 물품을 판매하는 가판대도 줄지어 늘어섰다.

직장과 가정에 충실하던 사람들은 마치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우르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오가는 인파에 수시로 어깨가 치이고 발이 밟히면서도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선물을 신중하게 고르는 이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따스한 함박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저작권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대부분의 상점은 경쟁적으로 거리를 향해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었다. '우리 가게로 오세요'라는 바람을 담은 상인들의 유인책이었겠지만, 덕분에 연말연시 특유의 설레는 분위기가 한층 살아났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곳곳에서 들리는 캐럴을 흥얼거리며 거리를 누볐다.

거리 한가운데에서 모금 활동을 벌이던 구세군도 빼놓으면 섭섭한 연말연시의 조연이었다. 착한 일을 하고 싶어 어머니에게 지폐 한 장을 받아 빨간 자선냄비에 넣으면, 딸랑딸랑 종을 치던 구세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훈훈한 덕담을 건네곤 했다.

1971년 미도파백화점

1971년 시청 앞 크리스마스트리

1971년 코스모스백화점

꾹꾹 눌러써서 보낸 고마운 마음

연말연시를 의미 있게 보내자는 캠페인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당시만 해도 연말연시에 이런저런 사건이 많았는지, 12월에 접어들면 정부와 지자체, 지역단체의 주도로 '연말연시 조용히 보내기', '연말연시를 가족과 함께' 등의 현수막을 들고 어깨띠를 두른 활동가 수백 명이 부지런히 거리를 오가며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전했다.

결핵 퇴치 기금을 모으기 위해 크리스마스 전후에 판매되던 크리스마스 씰도 높은 인기를 누렸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곳곳에 한시적으로 크리스마스 씰 판매소가 마련됐을 정도다. 크리스마스 씰 구매 자체가 곧 기부 활동이었던 데다가,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하장에 크리스마스 씰을 붙여서 보내면 수신인에게 '나는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점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마스 씰은 모두에게 이득이었다. 크리스마스 씰의 삽화가 예쁘다 보니, 취미로 매년 출시되는 크리스마스 씰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

각양각색의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 달력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판대에도 많은 사람이 몰렸다. 카드와 연하장을 수십 장씩 사서 지난 1년간의 고마움을 꾹꾹 눌러 쓴 뒤 우표와 크리스마스 씰을 붙이고 우체통에 집어넣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하다. 모두가 이렇게 하다 보니, 연말연시 우편집배원들이 들고 다니던 행낭은 산타클로스의 선물 꾸러미처럼 불룩했다.

사람들은 마치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우르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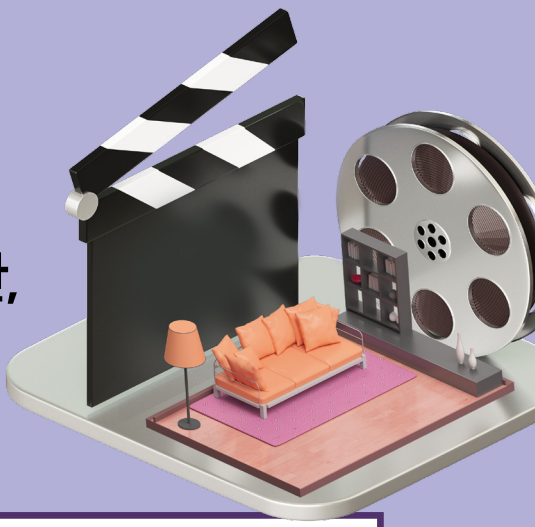
순수의 시대를 되새기며 다잡는 '챙김의 마음'

가정에서는 월동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겨우내 땔 연탄을 창고에 가득 들인 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루 서너 번씩 연탄을 갈아 끼웠다. 때때로 화목 난로를 거실에 설치하기도 했는데, 난로 위에 보리차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따뜻한 물과 적절한 실내 온습도를 모두 챙길 수 있어 좋았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시간을 고대했다. 대부분 조악하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트리를 사용했지만, 이런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트리에 반짝거리는 색색의 띠와 영롱하게 빛나는 구슬, 눈을 표현한 솜, 전구 조명 등을 취향껏 얹은 뒤 꼭대기에 별을 달고 나면 연말연시 내내 감상할 수 있는 우리 집만의 트리가 완성됐다. 성탄절 아침이 되면, 어린 마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어떤 선물이 놓여 있을지 기대하며 거실로 나서기도 했다.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야말로 '순수의 시대'였다.

이제는 아이들 대부분이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일까, 아니면 몇 년간 이어진 경기 불황 때문일까. 어느새 연말연시가 코앞이지만, 예전과 달리 들뜬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손 글씨 가득한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은커녕 인사를 전하는 '카톡' 한 줄조차 주고받기가 머쓱해진 오늘날. 새삼 50여 년 전의 연말연시를 떠올리며, 올해부터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보자고 다짐해 본다. KNF

1991년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모금



흘려보낸 만큼 흘러오는 시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2024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특별초청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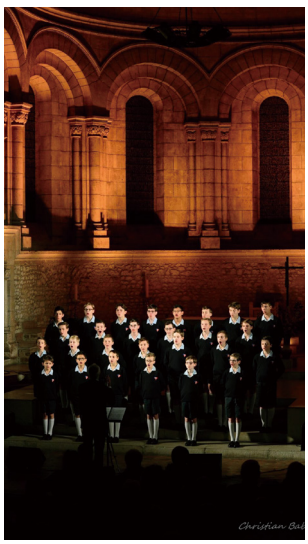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 마주하는 크리스마스는 때로 거룩하고 엄숙하게 느껴진다. 이에 걸맞은 분위기를 선사하며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소년합창단'은 이제는 연말 시그니처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소년들의 청아한 목소리 속에 한 해 동안 쌓아온 추억이 흐르고, 다가올 시간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오른다. 모처럼 순수하고도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소년합창단 특별초청공연을 찾아보길 바란다.

공연 PERFORMANCE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성남아트센터 비롯 고양, 부산, 대전 등
* 인터파크티켓 내 검색 시 지역별 예매 가능

기간: 2024. 12. 6.~22.

티켓: 지역별/좌석별 상이 20,000~110,000원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은 2000년 국가 지정 일출 행사로 시작돼, 매년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새해 아침까지 해넘이·해돋이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해맞이광장 한가운데 자리한 '상생의 손' 조형물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 위해 해마다 많은 인파가 몰린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퍼포먼스, 체험·먹거리 부스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게 운영된다. 뜻깊은 연말연초를 보내고 싶다면 포항을 찾아가 보자.

축제 FESTIVAL

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36 호미곶 해맞이광장

기간: 2024. 12. 31.~2025. 1. 1.

연말은 순식간에 흘러버린 시간에 대한 허망함과 아쉬움의 감정 뒤로 신년을 향한 기대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시기이다. 이런저런 감정이 뒤섞여 뒤숭숭해지는 시기인 것. 그러나 끝은 찰나이고 시작은 힘차게 다가오니, 아쉬워하기보다 흘러오는 시간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닫기가 되어줄 소식들을 준비했다.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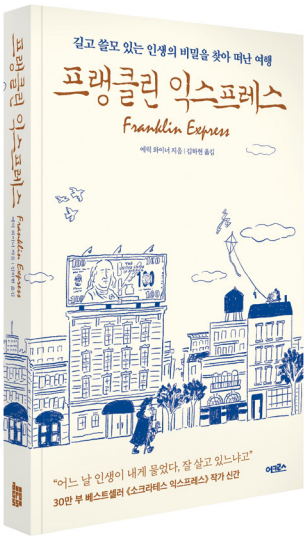
프랭클린 익스프레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와 영감을 찾아 떠났던 에릭 와이너가 이번에는 자기 계발의 아이콘 '벤저민 프랭클린'을 삶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갖은 의문이 들고, 프랭클린은 어떻게 인생의 난제들을 풀고 유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졌다. 끝과 시작의 기로에서 싱숭생숭해지는 때, 나이 듦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는 여정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도울 것이다.

책 **BOOK**

출판사: 어크로스

저자: 에릭 와이너



모아나 2

2020년 개봉된 <모아나>의 두 번째 이야기가 다가오는 연말 개봉된다. <모아나>는 부족의 저주받은 섬을 구하기 위해 바다가 선택한 소녀 '모아나'가 전설 속의 영웅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다. 2편에서는 한층 더 성장한 모아나가 조상으로부터 뜻밖의 부름을 받고 마우이와 새로운 선원들과 함께 오세아니아의 먼바다로 향하는 모험을 그린다. 주저 없이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모아나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해로 나아갈 동력을 얻어보면 어떨까.

영화 **MOVIE**

감독: 데이비드 데릭 주니어

목소리 출연: 아우이 크라발호, 드웨인 존슨 등

공개일: 2024. 11. 27.(예정)

사랑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에 답이 필요할 때 _____『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모든 추상적인 개념들이 그렇겠지만, '사랑'은 유독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주제다. 마윤한 직원도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수많은 물음표가 따라오곤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며 다소간 의문이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철학적인 분석으로 채워져 있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좋았다고 한다.

Voice. **시설운영부 마윤한 직원**

•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

이 책은 알랭 드 보통의 대표작으로, 소설의 형식을 빌려 '사랑'을 색다르게 해석한 내용이 담겼다. 가장 이성이 개입되지 않을 것 같은 주제인 사랑에 철학적 사유를 더해 찬찬히 뜯어보며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의미들을 발견해 나가는 책이다.

• 마윤한 직원의 추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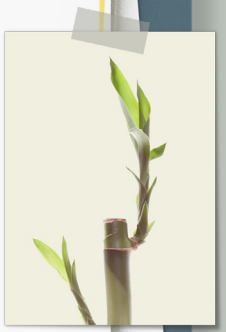
'사랑'이라는 주제는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사일 텐데요. 우리의 긴 인생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에, 한 번쯤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께 이 책을 공유합니다.

'문학의 속삭임'은 신청을 통해 우리 임직원 중 한 분을 선정, 직접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을 골라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어주는 코너입니다. 큐알코드 스캔 후 연동되는 페이지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이번 호에 선정된 마윤한 직원이 읽어주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의 일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고통스럽다. 자신 외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초한 달콤씁쓸하고 사적인 고통이다. 그러나 사랑이 보답을 받는 순간 상처를 받는다는 수동적 태도는 버려야 하며, 스스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책임을 떠안을 각오를 해야 한다.

---

2 대부분의 관계에는 보통 마르크스주의적인 순간이 있다. 사랑이 보답을 받는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이다. 그 순간을 어떻게 헤치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자기 사랑과 자기 혐오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 자기 혐오가 우위를 차지하면, 사랑의 보답을 받게 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우위를 차지하면, 사랑이 보답받게 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수준이 낮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

3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진리의 가치는 수백 년 전부터 의심을 받았다. 파스칼은 모든 기독교인이 신 없는 무시무시한 우주와 신이 존재하는 행복한, 그러나 훨씬 더 먼 우주로 불균형하게 나누어진 세계에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파스칼은 설사 신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가능성이 주는 기쁨이 더 큰 가능성이 주는 혐오를 압도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우리의 신상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쩌면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연인들은 오랫동안 철학자 노릇을 할 수가 없다. 연인들은 의심하고 캐물으려는 철학적 충동에 대립되는, 믿고 신앙을 가지려는 종교적 충동에 굴복한다. 연인들은 사랑 없이 의심을 하는 것보다는 틀려도 사랑을 하는 모험을 더 좋아한다.

#동지팥죽

신★인(4845)

동 동 거리게 추운 겨울이
지 긋하게 무더웠던 긴 여름을 밀어내고 드디어 왔어요.
팥 죽으로 속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죽 이 맞는 내 사람(들)과 함께 포근하고 따스한 겨울 나세요~

박★규(1274)

동 지 밤 별빛 아래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지 친 마음을 달래는 따뜻한 팥죽 한 그릇.
팥 죽 한 숟가락에 담긴 소중한 정
죽 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강★훈(5152)

동 백꽃 피는 쌀쌀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 난 한 해 동안 임신과 출산으로 고생한 와이프에게 올 겨울에는 따뜻한
팥 타고니아 패딩을 선물하겠습니다.
죽 을 만큼 사랑한다, 윤아림!!

노★애(6036)

동 네에
지 금 막 새로 오픈한
팥 빙수집~
죽 마고우와 함께 가야지!!

#연말

고★준(7931)

연 료는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다는
말 이야!!.

김★미(4443)

연 이은 실패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말 루 홈런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한★윤(7773)

연 말이라고?
말 도 안 돼, 벌써 연말이라니

박★화(1273)

연 말에는 가족과 함께 정다운
말 을 나누면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보내(주)자.

#크리스마스

이★정(3738)

크 나큰
리 본이 달린 크리스마스 선물을 몰래
스 윽 가져다 놓으려는데
마 침 아이가 깊게 잠들어서
스 무스하게 성공!

조★석(6499)

크 크크 행복한 웃음이 난다.
리 어카로 이삿짐을 옮기던 젊은 자취 시절이
스 르르 눈을 감으니 더욱 생생히 떠오른다.
마 음은 항상 그 시절 청춘인 것 같은데
스 마일 미소 없이도 보이는 주름이 참으로 야속하네.

이★종(6713)

크 리스마스를 혼자 보내는 사람이 있다.
리 (이)수종 또 너야?
스 리슬쩍 둘러 보는데…
마 윤한도 옆에 없네…
스 을픈 이수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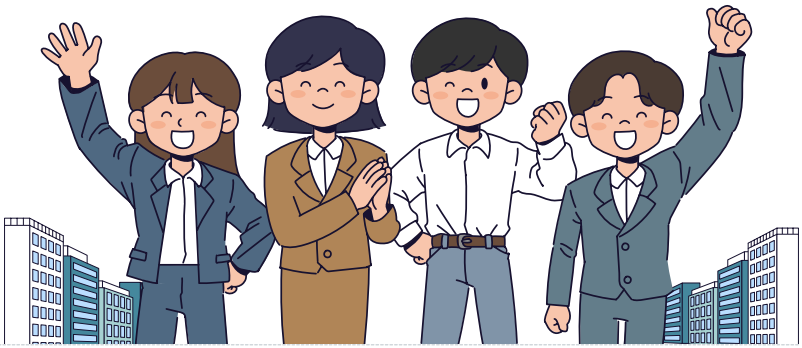
이★건(3822)

크 리스마스를 맞을 준비를 하며 생각했다.
리 (이)번 연말에는
스 트레스에서 벗어나 먹고 싶은 거
마 구 먹으며
스 스로 행복하게 만들자고!

• 독자 후기 •

'클릭! 인사이트'를 읽고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중심에 원자력이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올바르게 이용되는 원자력이야말로 빛나는 미래,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여는 화수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원자력과 함께하는 희망찬 대한민국,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KNF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합니다.

- 이★길(7498)



• 9·10월호 스도쿠 문제&정답 •

	2		4					3
	3	1		8				2
7		5			3			6
				7			8	
1	7						3	5
	4			3				
3			7			4		1
8				1		2	6	
6					4		5	

9	2	6	4	5	7	8	1	3
4	3	1	9	8	6	5	7	2
7	8	5	1	2	3	9	4	6
2	6	3	5	7	9	1	8	4
1	7	9	8	4	2	6	3	5
5	4	8	6	3	1	7	2	9
3	5	2	7	6	8	4	9	1
8	9	4	3	1	5	2	6	7
6	1	7	2	9	4	3	5	8

• 9·10월호 스도쿠 당첨자 •

최★석(9852)	서★은(0968)	이★훈(3867)	이★민(0518)	이★정(1121)	이★윤(9115)	김★신(5457)	하★비(3091)
오★경(2660)	심★옥(2310)	김★호(4139)	마★한(5227)	박★진(9763)	안★선(8498)	김★영(6623)	황★준(5219)
우★탁(6958)	고★주(6090)	나★현(5293)	김★주(4024)	우★솔(2202)	윤★윤(9289)	김★지(4731)	고★(4030)
김★하(2975)	배★리(2772)	정★진(6091)	조★연(8732)	정★람(1725)	정★종(1179)	오★연(5438)	함★연(3890)
김★욱(1834)	송★한(1994)	최★일(2080)	정★영(2467)	이★경(7199)	조★재(8373)	최★수(7614)	하★비(3091)
주★영(8230)	김★원(2379)	양★은(6424)	황★주(6863)	김★연(5258)	강★구(6915)	정★아(0051)	김★영(6623)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응모 기간 상시 모집
당첨자 선물 커피 상품권
보내실 곳 편집실(iyeji@knfc.co.kr)

▶ 원고를 보내주실 때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 <원자력연료>에서 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이 담긴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따스한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원자력연료>와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원자력연료>는 사내 문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격월로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입니다.
소통 증진을 위해 독자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① 해시태그 이벤트

KNF매거진 <원자력연료> 독자 여러분을 위한 해시태그 이벤트!
주제어로 지어본 N행시, 주제어 관련 사진과 사연을
편집실(iyeji@knfc.co.kr)로 보내 주세요.

2025년 1+2월호 주제어

#한겨울 #근하신년 #설날

② 두뇌 운동에 좋은 SUDOKU 게임

스도쿠는 가로 9칸, 세로 9칸으로 구성된 표에 1~9의 숫자를 채우는 게임입니다.
문제를 풀었다면 **완성한 결과지를 사진 찍어 편집실(iyeji@knfc.co.kr)로 보내 주세요.**

			2				4	6
5	6	2					8	
7							5	
3					9		6	1
	7		3		5		2	
1	9		4					3
	4							2
	5					8	3	4
8	1				2			

- **마감 기한** 2024년 12월 24일까지
- **당첨자 선물** 1만원 커피 상품권
- **당첨자 발표** 2025년 1+2월호 독자마당 페이지
- **보내실 곳** 편집실(iyeji@knfc.co.kr)

※ 응모하실 때는 이름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세요.

Never Ending Story

끝은 때로 영원한 안녕이 아닌, 또 다른 시작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신다면 내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안드로이드용

iOS용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